

이 銘文은 明政殿重建工사가 거의 끝나가던 二月에 工事に 關與한 사람들의 이름을 列記하여 보기 쉬운 곳에 두어 後日 어 떠한 目的을 위하여 使用될 수 있도록 備置하였던 것인 듯하다. 따라서 實錄에 進製하였다고 한 土樑文과는 別途의 것으로 보인다. 여기 記錄된 都提調 以下의 任員은 當時 光海君廟의 重臣들로 其中에는 光海君의 橫暴을 反對하고 下野한 사람도 있으나 一部는 果進하여 領相을 拜한 사람도 있으며 李冲 등은 繼續 土木工事的 重役者로 活躍하기도 한 사람들이다.

明政殿重建에 重要な 實務者이었던 提調들은 建築에 造詣가 깊은 사람이었던지 重建工사가 完了되자 곧 仁慶宮工事的 提調로 任命되었었다. 其中 李冲은 그 力量을 認定받아 判尹을 除授받고 王의 嬖臣으로서 方面의 일을 盡心監董한 사람이다. 이 銘文은 風雨로 中央部分이 磨滅되어 判讀할 수 없었으나 實錄에는 前記한 人物外에 提調 沈惇·李覺·前提調 李惺·權盼·閔馨男이 昌慶宮役事に 參與하였음이 記錄되어 있다. ①

現存 明政殿 建立年代가 壬辰亂以前이라고 한 關野貞 博士의 說에 따라 一般的으로 그렇게들 設定하여 왔다. 아직 上樑文이 發見되지 않아 確定할 수는 없으나 王朝實錄은 光海君 八年에 重建하는 各가지의 事實들을 記錄하였다. 이것을 綜合하여 보면 成宗朝에 創建한 建물이 壬辰亂 때 타서 光海君이 即位한 후 昌慶宮 다음으로 昌慶宮을 重修할 때 明政殿을 重建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光海君 七年 七月에는 明政殿을 舊基대로 짓는다 方向을 바꿀 것이냐의 問題로 論難이 있었다. 이로써 보면 燒盡된 建물을 새로이 지어야 되었던 모양이다. ②

이번 發見된 墨書銘과 史實과는 一致하고 있다. 여기서 얻어진 結論을 말하자면 明政殿은 光海君 八年에 竣工된 建物이라는 것이다. 지금 成宗十四年에 創建된 建물은 없다고 보아야 옳겠다. 그렇다면 前記의 設定年代는 마땅히 再考하여야 되지 않을까. 建物樣式上의 檢討와 並行되어야만 問題가 確定되겠으나 그 論證은 後考로 미루기로 하겠다.

① 光海君日記 七年十二月과 九年三月

② 韓星國 「昌慶宮考」 郷土지을 十三號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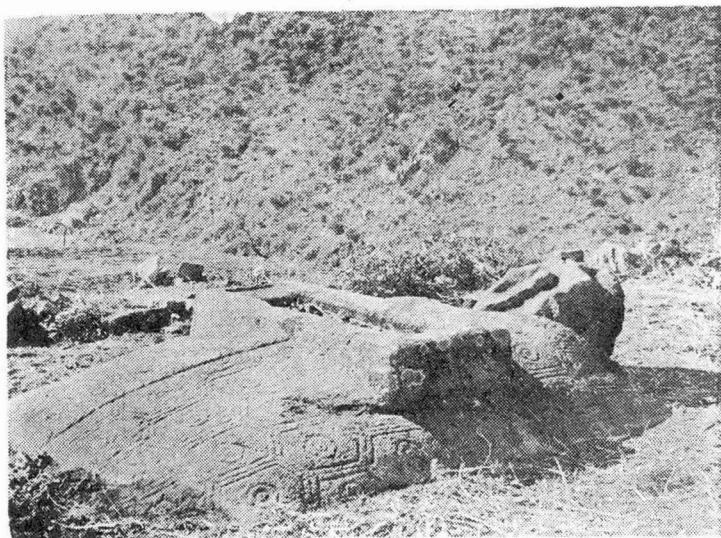
德山 伽倻寺址의 石造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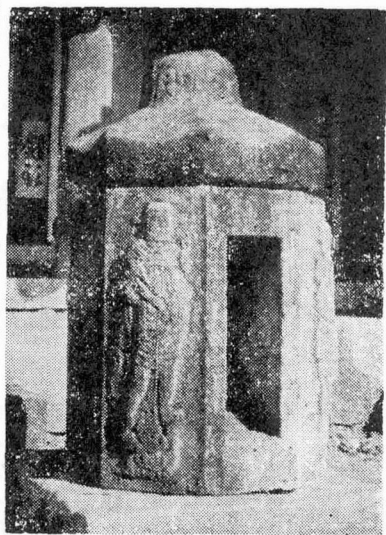
李 殷 昌

忠清南道 禮山郡 德山面 工伽里 伽倻山에 伽倻寺址 ①가 있어 이곳을 調査한 바 있는데 調査된 寺址·遺物等에 參考資料가 될까 하여 이 紹介하고자 한다.

1. 寺址

伽倻山에는 既往에 大小名刹이 많았던 모양으로 山西瑞山便에 開心寺·文殊寺等 古伽藍이 現存하고 또 雲山磨崖三尊佛像과 普願寺址가 이山谷에 있으며 最近에 百庵谷(백암골)에서 連名寺址 ②가 發見되었거니와 山東 禮山便인 伽倻谷(가야골)에 寺址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伽倻寺址이다. 伽倻寺의 創建은 未詳하나 그 廢寺는 李朝末이었다. 곧 興





宣大院君이 절을 불사르게 하고 그父親 南延君의 墓地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德惠에 報答하는 뜻으로 東北便山谷에 다시 절을 짓고 報德寺라 ③ 하였다. 寺址는 南延君 墓地를 中心으로 上

伽里 一帶에 걸쳐 廣範圍한 面積을 占有하고 있는 바 手法 奇巧한 石塔等 ④ 을 비롯하여 石佛·石燈·浮屠·塔碑等 石造遺物이 殘存하여 있었는데 모두 破壞·埋沒·搬出되고 現今은 荒涼한 廢墟에 겨우 石築臺·礎石等 建物址 一部와 石造物破片等이 散在하고 있으니 其中에서 龜趺一座와 石燈火舍石 一個가 參考가 될만한 遺物이라 하겠다.

2. 龜 趺

南延君墓에서 東北 幸 五〇〇m 地點인 報德寺로 가는 途中 南向한 伽藍址 附近山기슭에 있는 龜趺이다.

龜甲紋은 燃糸모양의 紋樣으로 外緣을 두른 背甲 全面에는 二重六角紋이 相連하고 各龜甲紋內에는 四葉으로 된 小形의 蓮花紋 ⑤ 이 配慮되었으며 背後 中央에는 脊柱가 表示되었는데 波形三條線과 小圓圈이 交互로 連續되었다. 이와같은 龜甲紋의 類例로는 普願寺址法印國師寶乘塔碑와 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 등에서 볼 수 있다. 下部는 埋沒되어 一部分을 試掘調査한 바 四角臺石에 四足이 配置되고 앞에 突出된 머리는 怪獸形으로 되었는데 足部와 頭部에 若干의 鈍厚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리고 龜甲가운데에 碑座가 마련되었으니 前後面의 紋樣은 未詳하고 兩側面은 限象內에 雲紋이 浮刻되고 頂上에 碑身을 드러내주는 二段方孔이 있다. 數個月前에 龜趺 앞 돌담 속에서 圓球形으로 된 塔身等 浮屠殘石이 搬出되었다는 바 이 龜趺가 墓塔碑인가 하며 그 彫刻手法

로 보아 麗代의 所作으로 推定된다. (石材: 花崗岩 龜趺의 長: 二六〇cm 幅: 二二〇cm 碑座의 長: 一四四cm 幅 六〇cm)

3. 石燈火舍石

報德寺 前庭에 移轉되어 있으니 元來 伽倻寺 石燈의 火舍石이다. 八角形火舍石인 바 四面은 火窓이 뚫려 窓邊으로는 窓裝置를 爲한 總十個의 小孔이 있고 窓內는 燈臺 또는 燭火를 놓을 수 있는 窓口보다 높은 臺狀을 形成한 것이 特異하며 天井이 그대로 뚫려 있다. 그리고 四方에 四天王像을 浮刻하였다. 四天王像은 모두 惡鬼生靈座에 두발을 버티고 거의 直立狀態로 서 있는 像으로 配置되었다. 多聞天의 寶塔을 받들고 있는 모습이 比較的 뚜렷하나 그 反對使의 增長天이 磨滅이 되어 彫刻 모습 이 더욱 確實하니 이 增長天의 例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踏鬼가 兩手로 足底를 떠받고 있는 위에 兩脚을 버티고 서 있는 바 右手로 戟稍을 잡고 左手를 어깨 위로 올려 주먹을 쥐고 있으며 얼굴을 左側으로 돌려 怒氣를 띠어 叱咤하는 모습이 氣勢가 있어 보인다. 또 甲冑의 精密한 點이 라는가 兩腕으로부터 날리는 天衣자락의 躍動하는 表現等 좋은 彫刻이다. 火舍石의 實測値는 高 八七cm 一邊長 三一cm 徑 七六cm 로 相當히 큰 石燈이었던 양이며 이른바 四天王石燈이니 그 彫刻樣式으로 보아 麗代의 遺品으로 推定된다. (石材: 花崗岩)

註

- ① 東國輿地勝覽卷之十九 德山縣佛宇條 「伽倻山」
- ② 一九六二年 九月 十七日 東亞日報 朴日蕙氏 紹介文 參照
- ③ 報德寺에는 禁口·銅鐘이 있었다는 바 禁口는 日帝末 戰爭時에 供出되고 銅鐘은 附錄參照
- ④ 高裕燮著 韓國塔婆의 研究 「朝鮮의 工藝的 諸塔」條 參照

〔附錄〕

報德寺 所藏 開心寺銅鍾

瑞山開心銅鐘이 報德寺에 現存하고 있다. 그 實測値는 總高 六五cm 口

徑五八cm로 鍾身은 突帶文으로써 三段으로 區分되었는데 上段에는 梵字가 돌려 있고 中段에는 四孔廓과 四菩薩立像이 交互로 配置되었으며 下段에는 銘文이 있다. 그리고 口緣은 唐草紋帶가 돌려 있으며 鍾頂에는 奇巧한 龍鈕, 甬筒이 있다.

鍾銘은

開心寺中鍾「重入二百斤」化主天心「前化主」玄奇「康熙十二年癸丑三月初三日」

이라 하고 또 施主名이 있으나 判讀치 못하였다. 鍾自體에서도 改修가 엿보이지만 銘文으로 보아 二百九十餘年前인 顯宗十四年(癸丑)에 改鑄된 것으로 推定되니 前化主 玄奇의 鑄造는 相當히 오래前 일일 것이다.

光州市內發見 甕棺葬의 一例

梁 會 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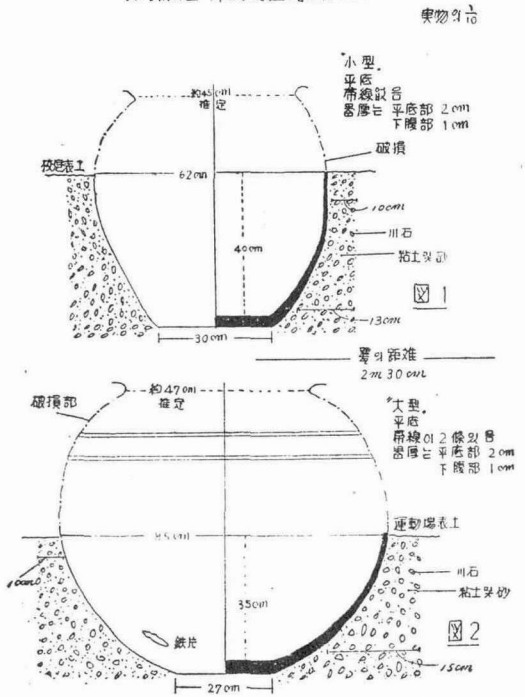
一九六三年 五月二〇日 全南 光州市內 芝山洞에 있는 사레지오女子 中高等學校 校庭에서 二個의 甕棺이라고 생각되는 大甕이 發見되었다.

이 날 同校 教師 朴某氏가 校庭 聖母像에서 校門쪽으로 約八m되는 地點에 龜裂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이 地點을 과 보았더니 一, 三m의 間隔을 두고 大小 두 개의 항아리가 묻혀 있었다.

이 항아리는 모두 灰色 新羅式 土器며 胎土에 長石粒이 많이 섞인 것이 注意되었다. 이 항아리들은 地中에 垂直位置로 묻혀 있었는데 그 周邊에는 川石·粘土·모래를 섞은 것으로 다져 있었으며 元來 항아리를 파 묻기 위해 판 구덩이에 항아리를 넣고 그 周邊空間을 다시 上記 混合土로써 메운 모양이다. 至今 항아리의 上半部는 運動場整地時에 이미 잘려 나갔고 完形이 남아 있지 않으나 大甕은 腹徑 〇·八五m, 小甕은 〇·六二m로서 바닥은 平底이고 多幸히 그 附近에 묻혀 있던 口緣部 破片

第四卷 第七號 通卷三十六號

사레지오女校校庭甕實測圖



사레지오女校 校庭甕實測圖

에 依하면 짧게 外反하는 式이며 항아리의 全形은 復原圖와 같은 것이었다고 推測된다.

小甕속에서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으나 大甕속에서는 劍片이라고 생각되는 길이 一〇cm가량의 鐵片과 有機質物 섞은 것이 들어 있었으며 이것이 甕棺이었다는 推測을 可能케 하고 있다.

光山郡, 靈岩郡, 羅州郡等 榮山江下流流域에서는 三國時代初期以來로 甕棺葬이 盛行했으며 특히 三國時代에 發展하였는데 여기 보는 항아리도 그런 것과 連結되는 甕棺의 一例라고 생각된다. 그 確實한 時期는 알 수 없으나 土器形態로 보아 新羅統一期頃에 屬하는 것 같은데 大甕의 腹部에 二條의 凸帶가 돌려 있는 것은 金海甕棺의 그것과 比較해 무슨 連絡이 생기는 것인지 모르겠다.

何如는 湖南地方 특히 榮山江下流의 甕棺葬의 새로운 例로서 여기에 紹介해 두는 바이다.